

## 2045 탄소중립, 누가 먼저? 용기내 사람 먼저!!

- ◇ 관내 중소기업과의 상생 모델을 통한 플라스틱 소비 감량 방법 제시
- ◇ 전통시장에서 실현하는 시민 밀착형 '2045 탄소중립' 정책

### □ 현황 및 문제점

- 일상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플라스틱 소비 감량 방법이 부재
  - 쉽게 접근 가능한 실천 방법이 많지 않음
    - ※ 현재, 주요 실천 방법 : 텀블러 및 장바구니 사용
- 지속가능 소비에 대한 의지가 있어도 번거로우면 실천이 어려움
  - 인천 관내 제로 웨이스트샵이 부족하고 운영 시간이 짧은편

### □ 주요 제안내용 (개선방안)




#### ① 시청 로비에 중소기업 협업 제로웨이스트샵 운영

- 시청 내 공직자 및 시청 이용 시민들이 쉽게 구매 가능
-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량이 가장 많은 부분인 세제류
  - 샴푸, 린스, 샤워세제, 세탁세제, 섬유유연제, 주방세제
- 유명 브랜드 제품을 지양하고, 관내 친환경 세제 생산 중소기업과 협업
- 추후 기초자치단체로 확대 운영

#### ② 인천형 “먼저 용기내” 프로젝트

- 전통시장에서 시작하는 “먼저 용기내”
  - 관내 전통시장 내 개인 용기 및 장바구니 사용 홍보
  - “먼저 용기내” 이용 고객에게 인센티브 제공
    - ※ 다회용기 이용 고객에게 쿠폰 1장 제공, 10장당 10L짜리 종량제 봉투 10매로 교환
    - ※ 종량제 봉투 대신 제로 웨이스트샵 제품 홍보를 위한 소정의 제품 제공
- 전통시장에 다회용기 공유 시스템 적용
  - 규격화한 다회용기를 제작하여, 공급·회수·세척·재공급 시스템을

- 도입하여 개인용기 미지참으로 인한 일회용기 및 비닐백 사용 제한
- 다회용기 대여하고 관내 전통시장 어디에서든 반환가능
- ※ 관내 다회용기 공유시스템 업체와 협업

		
<p>▲ 망원시장에서 고객이 직접 가져간 용기에 반찬을 담은 사진  <a href="http://m.silvernew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6738">http://m.silvernew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6738</a></p>	<p>▲ 대형마트에서 재사용 용기를 사용하여 생선을 구입한 류준열 후원자 (사진: 류준열 SNS)</p>	<p>▲ 인천 서구, 청라·가정동서 배달음식 다회용기 이용 서비스  <a href="https://www.incheonin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91448">https://www.incheonin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91448</a></p>

## □ 기대효과

- 공직자의 생활 속에 지속가능한 소비를 일상화하는 모범을 제시
  - 플라스틱 폐기물의 실제 감량 효과
  - 인천시민의 삶으로 지속가능 소비운동(용기내 챌린지 등) 확대 가능
- 시청 로비에 설치하여 인천시의 자원대순환 정책 의지 환기
- 관내 중소기업과의 상생으로 인천 경제 활성화에 기여
- ‘2045 탄소중립’ 실현 및 전통시장 활성화 동시 구현
- “먼저 용기내” 홍보 및 챌린지를 통해 ESG에 관심이 높은 MZ세대를 전통시장으로 유인